

# 반려동물의 종류 및 특징

## ⑧그레이트 데인 / Great Dane



글 | 박수영 전 사무처장(대한수의사회)

**그**레이트 데인(Great Dane)은 대형견들 중에 서도 가장 키가 큰 견종이지만 단지 크다는 표현은 이 견종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우아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며 큰 체구에 비해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레이트 데인의 유래에 관하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의 산에서 발견된 그림과 기원전 1121년의 중국문헌에 이 견종과 비슷한 종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몇 개의 나라에서 그레이트 데인을 양육하였으나 초기에 “독일의 개”란 의미인 “도이치 도게(Deutsche Dogge)”로 불리며 독일을 원산지로 하는 대표적인 견종이 되었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용도에 비해 정식견종으로 인정받는데는 짧은 시간이 걸려서인지 이 견종의 유래에 대한 다른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며 정식명칭도 “도이치 도게”가 아닌 “그레이트 데인”으로 변경되었다.

“그레이트 데인(Great Dane)”이라는 명칭은 프랑스말로 “그랑 다노와(Grand Danois)” 즉, “큰 덴



마크 사람”이라는 의미로 프랑스가 독일 원산지의 품종을 의도적으로 부정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이 견종이 덴마크와의 특별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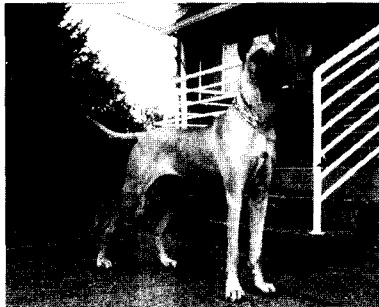
유래나 명칭에 대한 여러가지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견종은 공통적으로 수렵이나 전쟁, 경비견 등으로 활용되어 큰 체구와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1. 성격

그레이트 데인은 큰 체구에 비해 신경질적이거나 포악하지 않고 다정하며 사교성이 풍부하다.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의 이 개들은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 결여되면, 자립심이 강해져서 다소 고집이 센 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해주고, 주인의 바람이 합당하다면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순응할 것이다.

전체 견종 중에 중간정도의 복종도 가지고 있으

나 어린이나 가족 및 다른 동물에 대하여 친화도가 높아서 어느 곳에서나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학습능력은 높은 편이 아니다.



깨끗하고 치열이 고르게 나타난다. 목은 단단하며 높게 위치하고 아치형으로서 길고 근육질이며 목덜미로부터 몸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넓어지고 목은 깨끗하다. 가슴은 깊고 넓으며 근육질이고 엉덩이는 넓고 약간 경사져있으며 꼬리는 높게 위치한다.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 단단한 근육질이고 발목은 강하며 약간 기울어져 있다.

## 2. 외형

그레이트 데인은 일반적으로 크고 힘이 넘치고 잘 짜여진 부드러운 근육질의 몸에 멋진 외모와 위엄을 갖추고 있다. 그레이트 데인은 커다란 견종이기는 하지만 불품없이 짜여진 몸의 견종은 결코 아니며 길고도 우아하며 강인한 이미지와 행동을 보여준다. 사람에게 비교하자면 남성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외모이다. 일반적으로 수컷은 최소 체고가 76cm, 체중이 54kg이상이며 암컷은 최소 체고가 71cm, 체중이 45kg이상이다.



털색은 호반색(브린들), 갈색(화운), 파란색(블루), 검은색(블랙), 얼룩무늬(할리퀸)이며 털은 짧고 두꺼우며 부드럽고 윤기가 흐른다. 거대한 골격을 갖춘 그레이트 데인은 전체적으로 짧은 털에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이며 탄력 있는 걸음걸이와 행동을 보인다.

부분적으로 보면 머리는 직사각형에 길고 뚜렷한 윤곽을 나타내며, 특히 눈밑 부분은 가늘게 조각된 듯 섬세한 모양을 나타낸다.

눈은 중간크기에 진한 색이고 생기를 느낄 수 있으며 코는 파란색의 데인을 제외하고는 검은색이다. 파란색의 데인은 진한 파랑과 검은색이 혼합된 색의 코이다. 이빨은 강하고 잘 발달되어 있으며,

## 3. 사양 및 건강관리

그레이트 데인은 큰 체구에 비해 많은 특별한 훈련장소나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바닥에 넓은 잠자리만은 제공해야 한다. 딱딱한 바닥의 잠자리에서는 체중에 눌려 통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레이트 데인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성장기에 기본 예절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다소 고집 센 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성장이 빠른 만큼 영양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자칫 운동과 영양이 부족하면 키만 큰 불품없는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타 견종보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시기에 적절한 운동으로 뼈와 근육의 고른 발육을 유도해야 한다.

식사 직후에 과격한 운동은 자칫 위가 뒤틀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하며 짧은 털에 비해 많은 털빠짐이 나타나기도 한다. ㉟